



세종시-어반아트리움 파인엔유 퍼스트타워



청라 한신더휴 커널웨이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마르세도로 960

아파트·상업시설 분양, 생활 인프라에 주목

안정된 수익창출 위한 부동산 투자 가이드



갈수록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든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모든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역 업과 창업을 꿈꾸지만 성공확률은 2~5% 밖에 되지 않는 레드오션이다. 많지 않은 퇴직금과 그동안 어렵게 준비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양한 상업시설을 내놓고 있다.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집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업용 부동산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3500여가구 고정수요 품은 황금입지 상업시설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파인엔유 퍼스트타워

세종시의 중심상업지구 2-4생활권에서 랜드마크 상가로 지어지는 '어반아트리움'의 첫 자리 P1블록에서 파인건설의 '어반아트리움 파인엔유 퍼스트타워'가 공급된다. P1블록은 어반아트리움의 5개 블록 가운데서도 가장 우수한 입지환경을 갖춰 설계공모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다.

파인건설은 도시와 길, 사람을 잇는 세종시의 새로운 문화 풍경을 제시하며 설계 공모전의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상업시설과 전시관, 오피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지하 3층~지상 12층, 2개동, 연면적 약 5만5980.16㎡ 규모다. 1~4층에는 상업시설과 전시시설이 들어서며 5~6층 오피스(업무시설), 7~11층 오피스텔, 최상층인 12층은 전망공간이다.

'어반아트리움 파인엔유 퍼스트타워'는 어반아트리움 5개 블록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우수한 지리적 장점을 갖췄다. 세종시의 대중교통 버스노선인 BRT정류장이 도보 5분 거리다. 세종시 유일의 백화점 예정부지와 인접해 향후 백화점 이용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어반아트리움 파인엔유 퍼스트타워'와 백화점 예정부지 사이에는 대규모 광장이 조성된다. 인근으로 밀집한 3500여 가구의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와의 가장 가까워

향후 풍부한 고정수요를 품을 전망이다. 모델하우스는 세종시 대평동 264-1에 있다. 분양문의는 1600-0225.

파노라마 조망이 눈부신 소형평형 아파트

●청라 한신더휴 커널웨이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청라 한신더휴 커널웨이' 오피스텔이 분양을 시작했다.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6-19(청라국제도시 C10-1-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27층, 오피스텔 1140실 규모다. '청라 한신더휴 커널웨이'는 공항철도(청라국제도시역)와 청라~화곡역 BRT버스가 운행 중이다. 지하철 9호선이 공항철도와 연계·운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BRT버스가 신방화역까지 개통되고 2017년에는 제2외곽순환도로도 연결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인 커널웨이역(가칭)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명소 커널웨이 옆에 있어 조망과 생활환경이 좋다. 인근으로 CGV·메가박스·홈플러스·롯데마트 등도 있다.

단지는 임대선호도가 높은 전용 60㎡ 이하 소형평형 위주다. 51㎡ A·C타입은 3룸, 3베이 평면이 도입되는 아파트이다. 테라스와 알파룸이 제공되며 확 트인 커널웨이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분양가 외에 추가옵션 비용이 들지 않는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더 넓은 수납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 내 유일한 스카이라인 빌딩이 설계돼 파노라마 조망을 누릴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경서동 950-22번지에 있다. 분양문의는 1600-8232.

지하철 3개역 인접...교통·환경·교육 모두 OK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응암 10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백련산 SK뷰 아이파크'를 3월에 분양한다. 서울시는 은평구 응암동 419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 전체 1305가구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4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9~100㎡다. 단지는 응암대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희소가치가 높고, 교통·교육·자연·생활 인프라가 충분하다. 6호선 응암역과 세정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

선 녹번역도 인근이다. 내부순환도로의 진입이 편리하며, 광화문·종로 등 도심까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의도·광화문·상암DMC 등과의 접근성이 좋아 배후주거지로서의 가치도 높다. 단지 가까이 은평초가 있고 영락중, 중앙중·고 등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 앞에 불광천, 단지 뒤로 백련산이 가깝다.

단지 주변에 이마트와 신용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까우며,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있다. 견본주택은 은평구 응암동 108-2에 지어진다. 분양문의는 02-6732-8282.

서울 서남부권 대표 상권의 주인을 모십니다

●마르세도로 960

롯데건설이 2월24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4차 상업시설 '마르세도로 960'의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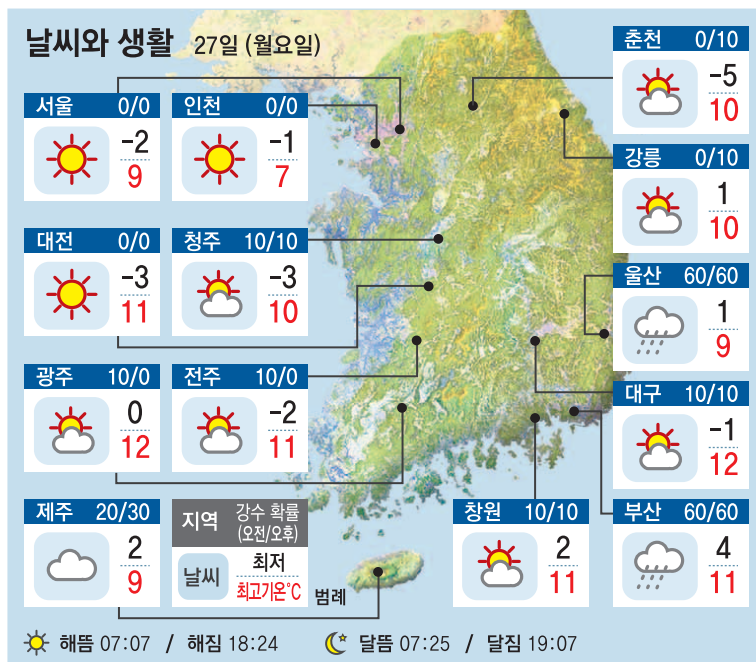
오픈과 동시에 청악이 진행되고 있다. 오피스텔 1~2인 가구 및 호텔 이용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스몰 럭셔리 콘셉트의 상가 구성(MD)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마르세도로 960'은 2016년 10월 공급된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상업시설 마르세도로 에비뉴에 이은 복합단지 내 마지막 상업시설 공급물량이다. 마르세도로 에비뉴는 청약접수 당시 최고 9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 3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상업시설은 롯데캐슬 골드파크 복합단지 진입로에 위치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전망이다. 바로 옆에 3차 단지 내의 대형마트(4만6000여㎡ 규모) 개점(예정), 인근 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와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과 더불어 서울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상권 형성이 기대된다.

오피스텔 로비-호텔-마르세도로 에비뉴와 연결된 동선으로 폭 넓은 고객수요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대로변 롯데캐슬 골드파크 복합단지 진입로에 있어 쉽게 눈에 띄는 만큼 풍부한 유동인구도 기대된다.

지하 1층 1억원~4억원, 지상 1층 6억원~9억원, 지상 2층 2억원~9억원대의 분양가격이 책정됐다. 최저 1억원대의 점포들도 있어 소액투자자에 적합하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냉·난방 기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김종진 기자 marco@donga.com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2/9 설악산 0/9 오대산 -5/8 계룡산 -5/10 속리산 -5/10 소백산 -3/9 팔공산 -1/11 지리산 -2/11 덕유산 -5/9 내장산 -3/10 한라산 -1/5	인천송도 -4/9 제주도 -3/9 경포대 1/10 속초 0/9 대천 -3/9 안면도 꽃지 -3/10 변산반도 -3/10 거문도 3/11 칠보 4/10 해운대 4/11 제주도 5/10	서울 56 보통 부산 46 보통 대구 49 보통 인천 65 보통 광주 57 보통 대전 55 보통 울산 46 보통 경기 70 보통 강원 52 보통 충북 55 보통 경남 46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28일(화) 서울경기 1/11 8/13 3/13 8/13 2/12 10/13 4/13 7/14 2/12
1일(수) 서울경기 1/8 8/8 5/11 8/11 0/10 10/10 2/11 8/11 6/13 7/14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27일(월요일) 음력:2월 2일

	쥐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자신의 일에 정성을 다하면 주변인의 지원과 주선으로 취업이나 거래, 자금운용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길방:서
	소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전초복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서두르지 말라.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오늘은 길과 흥의 운기가 교차하는 시기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문서업무에 신중하라. 길방:남
	토끼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해, 번개, 갈등. 운세: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길방:북
	용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싸움, 소심한 날. 운세: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문학, 예술 분야에서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길방:남
	뱀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특세하게 된다. 집급하게 되며 우월한 위치에 등극하게 된다. 오늘의 출장근거가 잘 성사되어 내일은 보상받는 날이 되겠다. 길방:중앙
	말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은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원숭이따가 귀인이다. 길방:동
	양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여유비, 겨우 해결. 운세: 오늘은 기발한 묘책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흰색 상의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은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다.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외의의 금전 수익도 있는 날이다. 길방:북
	닭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여성들의 경우 남편이 시시해 보이고 소통되지 않아 보인다. 길방:북
	개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환한 하루. 운세: 긍정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수입이 늘어 기쁜 날이다. 오늘은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길방:남
	돼지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자칫 인간관계에 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길방:동
	재운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3, 7, 8, (5, 9)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토끼, 양, 돼지

국학원, 전국 26개 지역서 삼일절 문화행사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은미)이 제98주년 삼일절을 기념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제주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 26개 지역에서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3·1 정신을 계승해서 홍익민주주의를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삼일절 행사는 지역마다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

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서울국학원 주관으로 행사가 열린다. 유관순 복장을 한 20여명이 '독도는 우리땅' 퍼포먼스를 펼치며, 세계국학원청년단의 태극무, 어르신 기공제조 등을 선보인다. 뭍놀이 체험마당, 청소년 난타공연, 역사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양형호 기자

인사



고용노동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태성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장 강현석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4			3			5
9		8			5	3	6
		3	6			2	
	9			2			7
6			1		7		8
		4		9		2	
	8	9			4	7	
3			5			4	2
	5			6			3

		4	5	7			9	
					1	5		3
8				6				2
3		1		8			9	
	6		3		1		2	
	8			7		3		5
2					8			1
5			1	9				
		8			7	5	4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6 8 1 8 9 2 4 9 7	6 7 9 4 1 8 2 8 1 9
2 8 7 6 4 9 1 9 8	9 8 2 7 6 1 4 8 9
5 9 4 7 1 8 6 8 2	1 8 4 8 9 9 7 6 2
8 2 9 9 6 8 7 1 4	9 1 8 9 4 6 2 8 7
8 7 6 4 9 1 2 6 9	7 2 8 1 9 8 6 9 4
1 4 9 8 2 1 2 6 8	4 6 9 2 8 7 1 9 8
7 6 2 1 8 9 8 4 9	2 9 1 6 7 9 8 4 8
9 1 8 9 7 4 8 2 6	8 4 7 9 1 8 9 2 6
4 9 8 2 8 6 9 7 1	8 9 6 8 2 4 9 7 1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편집인	이성춘	편집부	02 2020 1032	경제부	02 2020 1062
편집국장	연재호	스포츠1부	02 2020 1041	누리미디어센터	02 2020 1027
광고국장	이승욱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건부	02 2020 1069
인쇄	동아일보사	기사 외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o@donga.com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